

## ■ ( 언론 동향 ) 2021.10.29. “농민신문” 보도

### ○ 원자재값 쟁쟁..내년 비료값 상승 불가피

- 요소·염화칼륨·암모니아 등
- 지난해 대비 최대 2.5배 높아 세계 물류대란도 상승 부채질
- 비료업계 “값 인상 불가피”

무기질비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국제 원자재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1~12월 가격과 비교하면, 요소·염화칼륨·암모니아·인산이암모늄(DAP) 등 주요 비료 원자재는 최근 1.7~2.5배 높게 거래되고 있다.

특히 요소는 10월초 기준 1t당 659달러로, 지난해 11~12월의 2.4배 수준에 달한다. 요소 가격 상승은 최대 요소 생산국이자 전세계 공급 비중의 44%를 차지하는 중국의 공급 축소가 주요인이다.

중국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비료에 대한 생산 규제를 강화한 데다 내수용 비축에 나서며 수출 규제도 실시해 국제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2월이 되면 미국산 요소가 1t에 720달러, 브라질산 요소가 749달러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요소 공급 축소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낮아 중국 이외에서 생산한 요소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7월 이후 가격이 급격하게 뛰고 있는 염화칼륨은 지난해 11~12월 대비 상승폭이 더 크다. 1t당 235달러에서 2.5배 오른 590달러를 기록했다.

이같은 오름세는 캐나다 광산의 조업 중단과 벨라루스 수출 제재 등으로 인해 염화칼륨 공급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밖에 암모니아는 2.1배, DAP는 1.7배 상승했다.

암모니아는 천연가스가격 급등, DAP는 중국의 수출 중단 영향을 받았다. 암모니아가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만큼 천연가스가격이 오르면 암모니아가격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다.

전세계적인 물류대란도 비료 원자재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비료업계 한 관계자는 “1t당 300달러였던 요소를 700달러에도 잡기 어려운 데다 물류 사정도 좋지 않다”며 “소형 화물선은 특히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10. 29.(금)

국제 원자재가격이 치솟고 물류대란까지 겹치자 내년에 비료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료업계도 원가 상승으로 비료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비료값 인상 없이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비료업체 관계자는 “비료 원자재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비료가격은 원자재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올초부터 10개월간 원자재가격이 꾸준히 올랐고, 요소와 염화칼륨은 하반기 상승세가 가팔라 내년에 비료가격이 인상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 김다정 기자 >